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9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19.(목) 오전 11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9. 19.(목)	담당부서	원전수출진흥과
담당과장	김 진 과장(044-203-5330)	담 당 자	임태섭 사무관(044-203-5332)

원전 전(全)주기 분야 수출활성화로 우리 원전산업 세계화 박차

- 산업부, 원전기업, 금융기관 등 참여하는, 「원전수출전략협의회」 개최 -
- 원전공기업-수출금융기관 간 「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(MOU)」 체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는 2019.9.19.(목),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**'원전수출전략협의회*'**를 개최하였다.

* 정부, 원전공기업, 민간기업,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분야 전략·정보 논의 협의체

○ **성윤모 산업부장관 주재** 하에, 원전 기업, 수출금융기관 등 16개 기관·기업들의* 기관장 및 대표들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, 참석자들은 최근 **원전 수출 추진상황을 점검**하는 한편, **원전 전주기 분야 세계시장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**을 논의하였다.

○ 아울러 우리 원전수출산업의 근간인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에 대한 **현장의 목소리**를 직접 듣고, **실질적·구체적 지원방안**도 모색하였다.

* (원전공기업) 한전, 한수원, 한전케이피에스(KPS), 한전기술, 한전연료
(기업) 두산중공업, 수산이엔에스(ENS), 삼신, 이에스(ES)다산, 하나원자력기술, 유니슨이테크
(수출금융기관)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
(원전수출 민간기관)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, 한국원자력산업회의

□ 이번 협의회는 그간 대형원전 사업 위주 수출전략을 **▲원전 전주기로 확대**하고, ▲중소·중견기업의 **독자적 수출역량** 제고를 통해 **글로벌 수출산업화를 촉진**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.

□ **성 장관**은 모두 발언을 통해, "우리 원전산업은 바라카 건설 및 정비 계약 체결,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(NRC) 설계인증 획득 등 **국내외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**"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.

○ 다만 "중소·중견기업의 **독자적 수출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부족, 다양한 서비스시장(운영·정비·해체 등) 진출 미진**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"는 문제의식을 제시하였으며, 참석자들도 이에 대해 공감하였다.

○ 성 장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"해외 원전 선진국들이 자국 내 신규건설 수요의 감소 속에서도 **서비스시장 진출, 시장다양화 전략** 등으로 지속 성장해온 바와 같이, 우리 원전수출산업도 **원전 전주기, 중소·중견기업 중심**의 전략으로 **전환**해야 한다"고 강조하였다.

□ 이후 참석자들은 해외 원전시장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**진출 전략과 대응 방향**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○ 우선 세계 원전시장은 신규원전(향후 20여년간 약 1천억불 규모) 시장 규모와 대등한 운영·정비 및 후행주기(해체 등) 분야로 구성된 **전주기 시장인 바, 이를 적극 공략**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.

○ 또한, **영국, 사우디, 체코** 등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발주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, **중동, 동유럽 지역의 중소형 원전 및 기자재·정비 시장** 진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○ 이에, 그간 대기업 수주사업에 의존해 온 중소·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역량* 제고를 위해 **마케팅, 수출금융(자금지원, 해외인증비용 등), 연구개발(해외기준에 맞춘 설계 변경 등)**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.

* 원전 가치사슬 내 주요기업 대상 수출현황 조사 결과, 독자 수출경험 보유 중소·중견기업은 약 전체의 약 15% 수준

□ 한편 이번 협의회 계기, 원전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, 한전, 한수원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, 원전수출협회 등 5개 기관은 「**원전수출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**」을 체결하였다.

< 원전수출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주요내용 >

○ **(체결주체)**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한전, 한수원, 원전수출산업협회

○ **주요 협력분야**
❶대형원전사업 정보 및 전략협력 ❷중소/중견기업 독자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❸각 기관들의 원전수출지원 정책 간 상호연계 ❹원전수출금융실무그룹 운영 및 이를 활용한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

○ 향후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반 협의를 통해 **구체적 수출금융 지원 방안**을 마련할 계획이며,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및 중소·중견기업의 실질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아울러,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 대형원전·대기업 중심 전략을 전주기·중소/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**'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'**을 발표하였다.

<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 (주요내용) >

○ **(배경)** ①대형원전 외 다양한 시장기회 형성 ②대기업 위주 수출전략 개선 필요

○ **(현황)** 산업 역량(경제성·기술력 등)은 우수하나, ①기자재 분야 등 수출역량·전략 미비 ②내수위주 ③체계적 지원체계 미흡 등이 극복 과제

○ **(전략)** ①수출대상국, 수주경쟁국을 고려한 전주기 맞춤수출 전략 ②개별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화 ③상시적.제도적 수출인프라 구축으로 수출지원 환경 혁신

○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을 바탕으로, 금일 논의된 각종 의견·제안을 반영하여 **각국별 맞춤형 수주·협력 전략을 시행하고, 해외 마케팅 지원** 방안도 즉시 마련, 착수키로 하였다.

○ 또한, **금년 내** 원전 전주기 수출을 위한 관련기관의 **실무 지원 체계를 완비**할 계획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임태섭 사무관(☎ 044-203-53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**원전수출전략협의회 개최 개요**

□ 일시·장소 : '19.9.19(목) 14:00 ~ 15:10,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(11층)

□ 참석자 : 정부, 공기업, 민간기업 등 16개 기관

○ (산업부) 산업부장관(주재)

○ (원전 공기업) 한전, 한수원, 한전기술, 한전연료, 한전KPS

○ (수출 금융기관)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

○ (원전수출기업) 두산중공업(주기기, 보조기기), 수산ENS(계측제어,정비,시운전), 삼신(밸브), ES다산(침수방호), 하나원자력기술(방사선안전관리), 유니슨이테크(파이프기자재)

○ (원전유관단체)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, 한국원자력산업회의

□ 발표 안건

① 원전수출 추진 현황 및 과제 (한전/한수원)

② 원전중소기업 수출현황 및 애로사항 (원전수출산업협회)

③ 원전 全주기 수출활성화 방안 (산업통상자원부)

□ 진행 순서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4:00 ~ 14:05	5′	· 사진 촬영 및 모두 발언 (언론공개)	산업부장관
14:05 ~ 14:10	5′	· 금융지원 협력 MOU 서명식 (언론공개)	5개 기관*
14:10 ~ 14:20	10′	· (안건1) 원전수출 추진 현황 및 과제	한전/한수원
14:20 ~ 14:25	5′	· (안건2) 원전중소기업 수출현황 및 애로사항	원전수출협회
14:25 ~ 14:30	5'	· (안건3) 원전 全주기 수출활성화 방안	산업부
14:30 ~ 15:05	35'	· 토 론	참석자 전체
15:05 ~ 15:10	5′	· 마무리 발언	산업부장관

* 한전, 한수원, 무보, 수은, 원전수출협회